

나의 留學生活과 프랑스의 高等教育制度

崔 雲 植
(梨花女大 社會生活科 副教授)

I. 留學生活

美國 大學으로부터의 Scholarship 을 전강상의 이유로 포기한 이후 3년여를 전전금금하던 차 프랑스 정부로부터 장학금(Bourse)을 받게 되었다. Bordeaux 大學에서 3개월의 語學實習을 마치고 파리에 도착한 것은 1976년 9월초였다. 책에서만 대하던 예술의 도시 파리는 예술의 도시가 아니라 불안의 도시였다.

먼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기숙사(cité)에 방을 얻어 놓고,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Paris Sorbonne 大 地理學科를 찾은 것은 며칠 후의 일이다. 먼저 secretary에게 나를 소개하고 學科長을 만나려고 한다 했더니 매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 理由는 전화도 없이 함부로 찾아왔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나의 “氣”가 죽기 시작했다. 학과장과의 면담 약속 신청을 해 놓고 며칠을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 학과장을 만났더니 냉담한 표정을 짓는 그에게서 신경질적인 불어가 마구 튀어나온다. 指導教授는 J. Bastie, 研究課題는 Geographie urbain et Amenagement Territoire 등. 그리고 지도교수를 만나서 연구 과제 및 등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상의하라는 불호령이다.

지도교수의 연구실에 전화를 했더니 secretary

가 전화를 받기에, 나를 소개하고 Bastie 교수를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면담날짜를 정해 준다. 여기서 나의 지도교수를 잠깐 소개하고자 한다. Bastie 교수는 프랑스 敎聯 事務總長, 파리 地域開發研究所 所長 등 많은 분야에서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나중에 안 일이지만 성질이 매우 까다로와 프랑스 학생조차도 접근을 꺼리는 분이다.

지도교수와의 면담은 2시간여 계속되었다. 연구과제, 나의 신상, 그리고 지리학 전반에 대한 테스트(written 및 oral)를 받았다. 그리고 집에 가서 기다리라는 것이다. 大學院 委員會의 심사를 거쳐 入學이 허락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것은 10月 하순이었다. 11月初부터 강의가 시작되었다. 9月初부터 구름과 비가 계속되더니 10月初부터는 더욱 캄캄해지기 시작한다. 날씨의 변화만큼이나 나의 기분도 점점 캄캄해졌다.

첫학기에는 3과목(9 C.V.)을 신청했다. 첫시간부터 일찍 강의실에 나가 맨 앞줄에 앉았다. 그러나 敎授의 강의는 정말 알아듣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classmate의 노트를 빌려 보기 시작했다. 프랑스 학생들은 우리와는 달리 교수의 기침소리까지 전부 기록하는 습관이 있다. 이것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노트 필기를 正字로 쓰는 것이 아니라 속기사와 같이 略字를 쓴다는 것이다. 노트를 빌

려다가 모르는 약지는 사전을 찾고 하여 밤을 꼬박 세워 가며 타자를 정리하기를 1년여, 그야말로 긴장감의 연속이다. 1년 후에는 DEA (Diplome d'étude Approfondie) 시험을 쳐야 하는데 이것이 첫 관문이고 이틀에 걸쳐 실시된다. 필기시험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실시한다. 筆記試驗은 수십 장의 白紙를 매꾸는 일이나, 동양인 누구나 그렇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그러나 面接은 그렇지 않았다. 3명의 교수가 번갈아 2시간을 물어 오는데 정말 혼이 났다. 면접을 끝내고 나오니 양복 안락이 모두 젖은 것도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며칠 후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프랑스에서는 敎育區(Academie)에, 대학생의 학사업무, 기숙사 운영, 과외활동 지도, 프랑스 문화 소개 등의 文化行事를 지도하는 Crous Centre regindle des oeuvres Universitaires et Scolaires가 있고 파리에선 CNOUS가 있다. 이곳에서는 週末마다 학생들을 위해 관광 명소를 안내하고, 산업시찰 이외에 opera, 박물관 등을 관람시켜 프랑스 문화의 노예를 만들고 있다. 때로는 나와 같은 정부 초청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프랑스 가정집 안내도 하고 있다.

지리학을 하는 나로서는 勿失好機라 프랑스를 알고 프랑스의 地理를 아는 데는 매우 좋은 기회였다. 비교적 平易한 유학 생활을 했다고 자부하는 나로서는 DEA를 끝내고부터는 이러한 모임에 자주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파리 유학생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의 하나는 박물관, 고궁, 미술관, 관광명소 등의 관람이다. 이러한 것들은 파리의 전 지역에 50m 간격에 하나씩 있다. 그리고 더욱 유학생활에서 見聞을 넓힐 수 있는 것은 외국인 장학생에게 주어질 기차 무료 승차 제도와 敎育區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학생용 기숙사이다. 프랑스는 학생의 天國이라고 할 수 있다.

論文에 빨간 줄이 그어지기를 수십 차례, 이러한 苦痛을 겪은 후, 論文의 印刷를 허락받았을 때는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희열을 느꼈다. 그리고 더 큰 기쁨을 느낀 것은 논문통과 때였다. 研究論文은 大都市圈의 都市 空間과 人口移動

(Espace Urbain et mouvement de population dans l'agglomeration de Seoul)이었다.

첫째, 연구의 필요성을 찾기 위해 파리와 우리 나라 수도권의 도시공간 변화를 비교 연구하였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수도권이 대부분 그러하지만, 파리는 인구 및 모든 기능이 점차 中心에서 周邊으로 이양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中心地로의 移動을 계속하고 있다.

둘째, 수도권의 경제 공간이 얼마나 확산 및 집중되고 있는가를 時系列의 方法에 의해 分析하였다.

셋째,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원인을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에 의해 찾고 Regression Analysis하였다.

1960년대 이후 都心化의 급진전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加速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首都圈지역의 교육 기능 및 경제 기능의 지방 분산이 절대 필요하다.

둘째, 行政的으로는 京畿道와 서울시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建築學的인 측면에서 건물의 sky line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를 中心으로 반경 5km 내에서는 7층 이내, 20km 밖에서는 10~15층 등이다.

네째, 稅制面에서 區域別 差等稅制를 실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반경 5km내에서는 高率의 稅金을, 30km 밖에서는 低率의 세금을 부과시킨다.

다섯째, 교통 통신 수단의 改善이다. 즉 수도권 환상도로의 신설, 서울시 중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 단위별 전화 요금제도를 거리 단위로 바꾸는 일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화곡동에서 망우동까지의 전화 요금은 화곡동에서 김포까지의 전화요금보다 오히려 싸다.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II. 프랑스의 敎育制度

1. 복잡한 敎育體制

변화를 싫어하고 과거에 집착하려는 국민성 및

Gaule 쪽 특유의 편협성, 남의 것을 거부하는 쇼비니즘(chauvinism)등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학교 교육제도는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프랑스 대학의 큰 변혁은 1968년 교육개혁령에 연유된다. 교육 개혁에 의해 지금까지의 단과대학(faulté)중심의 대학이 學科(Unités d'enseignement et de Recherche)단위의 대학으로 바뀌었다.

대학은 크게 大學校(université), 技術專門大學(instituts), 高等專門學校(Grandes Ecoles)로 나누어진다. 大學校는 23개 教育區에 1개교 이상 설립되어 총 57개가 있으며, 특수 연구기관 또는 특수 목적을 위해 세워진 6개의 Centre Universitaire, 3개의 Instituts nationales polytechniques, les observatoires, l'École pratique des Hautes Etudes, la Fondation Nationale des Sciences politiques 이외에 大學院격인 College de France가 있다. 그 중에서 Centre Universitaire à Vincennes은 일반 학생은 물론 봉급생활자 중 바카로레아(Baccalauréat)가 없는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대학으로, 시험에 의해 입학이 가능하며 프랑스에서 가장 진보적인 대학이다.

College de France는 수학, 물리 등의 자연과학 분야, 철학, 사회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 역사 고고학 등의 인문 과학 분야로 나누어 가르치는데, 명망 있는 교수들이 강의를 담당하고 학위나 증명서를 발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Les observatoires, la Fondation Nationale des Sciences Politiques, l'École pratique des Hautes Etudes가 있다. 특히 高等社會科學院(l'École pratique des Hautes Etudes)은 연령과 학력의 제한 없이 입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1년간의 조건부 입학 후 시험에 성공할 경우 정식으로 학생이 되며 학위도 수여한다.

技術專門大學(Instituts Universitaire de Technologie)은 기계공학, 토목, 건축, 전자, 식품공학, 정보과학, 교육학, 행정학, 재정학 등의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연구 기관으로 바카로레아 없이도 입학할 수 있다. 수업 연한은 2년으로 졸업과 동시에 전문 기술사증(diplôme Universitaire de Technologie)이 수여된다. 地

方 곳곳에 散在해 있으나 프랑스의 모든 교육기관이 그러하듯이 人口 分布 및 人力需給에 비례하여 설치되었다.

소위 정예 관리(Technocrates)를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고등전문학교(Gramoles Ecoles)에는 국립 고등 사범학교(Ecole Normale Supérieure), 국립 理工學校(Ecole polytechnique), 국립 건축학교(Ecole Nationale des ponts et Chaussées), 국립 광산학교(Ecole des mines), 국립 행정학교(E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 등이 있다.

이 밖에 特殊教育機關으로 平生教育機關이 있는데 평생교육은 정부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 문무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예술기능대학(Lo Conservatoire Nationale de Arts et Metiers)과 통신대학(le Centre national de Télé-Enseignement)이 있다. CNAM은 직장인에게 보다 나은 기술과 과학적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1819년에 창설된 평생교육기관이다. 교육은 강의와 실습을 주로 하며, 강의 과목은 전문과목 이외에 수학, 물리, 응용과학, 경제학 등 敎養科目이 포함되어 있다. 졸업과 동시에 시험을 거쳐 전문기능 자격증(Diplôme de CNAM)을 받는데 이것은 대학에서 DEA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CNTE는 정규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 개설된 通信教育機關으로 누구나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기초과정, 일반과정, 기술 및 직업과정 이외에 대학의 DEUL(Diplôme D'étude Universitaire Litteraires) 학위 과정 또는 각종 국가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과정 등이 있는데 일반 교양교육과 언어교육도 실시한다.

2. Baccalauréat 와 學位

大學進學을 원하는 者는 누구나 바카로레아를 취득해야 하는데 바카로레아는 다음과 같이 다섯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 가. 文學 및 哲學
- 나. 경제학 및 사회학
- 다. 수학 및 물리
- 라. 자연과학 및 응용과학

마. 농업

해당 專攻分野의 바카로레아를 취득한 후 같은 분야의 大學 入學이 허락된다.

만약 외국인과 같이 바카로레아가 없는 자는 입학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입학시험은 A, B 두 종류가 있는데, A는 文科(문학, 인문과학, 법학, 경제학 등) 공부를, B는 理科(의학, 약학, 치의학 등)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시험은 면접과 필기시험이 있는데 필기시험에는 논문, 어학(외국어, 고문)과 수학, 선택(수학, 역사, 지리 중 택일 및 물리, 화학, 자연과학 중 택일)이 있다.

大學의 학위 과정은 2년의 공부를 마쳐 교양과정 수료증을 받고 1년 이상을 공부하면 학사학위(Licence), 그리고 2년을 다치면 석사학위를(Maitrize)받고, 전문 박사(Doctorat de Spécialité), 3기박사(Doctorat de 3^e Cycle), 공학박사를 거친 후 국가 박사(Doctorat d'état)를 받게 되어 있다. 이 밖에 대학박사(Doctorat D' Université)도 있는데 이것은 본래 학벌은 없으나 학식 및 경력으로 보아 박사 학위를 주어도 될 수 있는 사람에게 論文만 쓰게 하여 주던 제도이나 현재는 외국인에게 주로 수여한다.

대학의 학위 과정을 구체적으로 법학, 경제학, 문학, 理工學, 의학학별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1) 法學分野

수업년한은 4년인데 2년 공부를 마친 후 시험을 쳐 DELG(Diplôme d'étude legale générale)를 받고 나서 2년을 더 수료하면 학사학위를 받는다. 학사학위를 받은 자는 전문박사 학위과정을 거친 후 국가박사학위에 등록할 수 있다.

(2) 經濟學分野

법학과 마찬가지로 매년 학기말 고사를 거쳐야 하는데 탈락을 많이 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2년차말에는 시험을 거쳐 DEEG(Diplôme d'étude Economique générale)를 받고 공부를 계속하여 4년말에는 경제학 학사학위를 받는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2년간의 DES 또는 전문박사(Doctorate de Spécialité)를 거쳐 국가박사에 도전할 수 있다.

(3) 文科(문학, 어학, 역사, 지리, 철학)

문과계 학생들은 2년간의 교양교육을 끝낸 후 시험을 거쳐 합격하면 DEUL을 받는다. DEUL을 받은 학생은, 1년 이상을 공부한 후 문학사 학위를 받든지 또는 2년 이상을 더 공부하여 석사 학위(Maitrize)를 받을 수 있다. 석사학위를 마친 학생은 1~2년간의 DEA를 거쳐 3기박사 학위에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3기박사 학위를 거쳐 국가박사 학위(Doctorat D'étaten Science humain et lettres)에 진학할 수 있다. 연구기간은 최소한 5년으로 되어 있다.

(4) 理科(수학, 물리 등 순수과학, 전자, 기계 등 응용과학 포함)

文科와 비슷한데 2년 후에는 DEUS (Diplôme d'étude Universitaire Scientifique)를 따야 하는데 文科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매우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시험 기회는 두 번 이상 부여하지 않는다. DEUS를 취득한 후 1년 후에 학사학위를, 그리고 2년 후에는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DEA를 거쳐 3기박사학위에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3기박사, 공학박사,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국가박사에 진학할 수 있다.

(5) 醫藥學分野

의과대학은 2년간의 예과(1^e cycle), 4년간의 本科(2^e cycle)을 거쳐야 되며 전문의에 도달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약학은 1년간의 예과(1^e cycle), 3년간의 수련(2^e cycle), 1년간의 전문의 과정을 거쳐야 수료된다. *